

## [박사학위 논문소개]

- 논 문 제 목 : Capitalist Development, Space and Environment in Postwar Korea : A Regulationist Approach
- 학위취득자 : 정재용
- 학위취득대학 : The University of Liverpool
- 학위취득년도 : 1997. 7
- 지 도 교 수 : Richard Kirkby
- 학 위 명 칭 : 공학박사
- 전 공 분 야 : 도시설계 및 환경계획

우리 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경제정책 및 국토 개발정책으로 고속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경제발전 일변도 정책의 그늘 속에서 사회 및 환경문제는 심화되어 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한국의 사회환경문제를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연구이다.

지금까지의 환경문제의 인식과 이해는 기술적인 측면과 관련분야의 개별적 해석으로 이루어져 한 사회의 총체적인 세력들의 관계를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환경문제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틀로서, 자본주의 경제 메커니즘과, 국가의 역할을 해석한 국가론, 그리고 환경이론들을 하나의 틀로 통합하기 위하여 조절론을 채택하였다.

조절론은 공간적 개념의 차이를 두어 한 국가의 정치경제는 세계 정치경제 세력과 국내 정치경제 세력 사이에서 국가 정책으로 전개된다고 본다. 또한 이 이론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계속적인 위기대응을 통한 축적체제의 변화로 봄으로써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절론의

틀 속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국가정책, 그리고 환경의 상호 연관관계를 찾아보았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축적전략과 정치 및 이데올로기적 전략에 따라 5개의 축적 체제(Easy ISI, Taylorist EOI, Yusin EOI, Peripheral Fordist and Neo-Fordist Regimes)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러한 축적체제의 발전은 자본의 중앙화와 집중화를 부추기면서 자본주의의 공간집중 경향과 각종 개발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전략으로 한국의 공간구조를 중심소비권, 산업주변부, 그리고 농업 주변부로 분화시키면서 노동 및 계층간의 세분화를 수반하였다.

한국의 환경문제는 이러한 공간구조 아래 세분화되었다. 지역별로 경제, 사회수준에 따라 환경문제는 다양한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환경 정책은 획일화되어 있고, 이슈의 대상도 소비에 의한 환경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환경단체의 대항과 지지기반인 중산층들의 이슈를 주로 다루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수출기반인 산업생산권의 산업공해에 대해서는 약한 규제를 가하고 중심소비권의 소비부문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환경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의 획일성과 규제대상의 편중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볼 때 환경문제의 악화는 경제성장으로 정당성을 찾으려는 국가의 경제전략이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국가정책 또한 한국의 환경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